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 1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 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낀 마음 뿐 일세
- 2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 3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하도다
- 4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 하도다
- 5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 일세 아멘

369장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 1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 2 시험 걱정 모든 괴롭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 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 3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멀리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2월 13일(목) 기도 담당 : 정준수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신기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95장 ..... 다 함 께  
 기 도 ..... 김광열 집사  
 성 경 봉 독 ..... 신명기 15:1~6, 12~18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매 칠년 끝에는 면제하고 자유롭게 하라』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369장 ..... 다 함 께  
 축 도 ..... 설 교 자

<신명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2월 11일(화)	신 14:22~29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2월 12일(수)	신 15:1~6, 12~18	매 칠년 끝에는 면제하고 자유롭게 하라
2월 13일(목)	신 16:1~12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2월 12일(수)

###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평안히 지켜주시고 새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면제의 규례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웃에 은혜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넉넉히 사랑으로 더 나누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야할 길과 방향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움츠러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속히 온 세상이 안정화 되게 하옵소서.

###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새문안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 되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새문안 교회는 올해 주신 표어처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본질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회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제직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병상 가운데 있는 교우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